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Feb. 2019
Vol.7 No.1

- ICY 중고등부 수련회
- 사역국 / 목장
- 교우동정 / 권사회
- 청년부 소식 / 칼럼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주안에생명 1단계(신앙의 기초 쌓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성도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최호기 기자>

인간 · 예수님 · 구원... 성경의 흐름 한눈에

■ 주안에생명 개강

“인간은 목적적 존재이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빛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 볼 때만 그분의 공유적 속성인 거룩과 의로움, 사랑과 자비, 인내와 온유 등 본체인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반사체가 될 수가

있다...”

새해를 맞아 기다리던 ‘주안에 생명’ 시리즈 말씀공부가 1월 11일 금요일 밸리채플(MP채



플 1월 13일) 4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 됐다.

크리스천이면 알아야만 할 하나님, 인간, 예수님, 회개, 구원, 예배 등 신앙의 기초를 총24개 주제로 설정해 최혁 담임목사가 진행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설교와 달리 성경과 세계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을 함께 짚어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성경의 전체 흐름이 점차 또렷하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다. <2면에 계속>

| 임용자 기자 |

■ 안수집사 · 권사회 회장 다짐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된 교회'의 밑거름

공태용 안수집사(벨리 안수집사회) 2019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회원들간에 화목하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며 연장자를 위한 차량봉사를 통하여 낮아짐을 경험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피택 안수집사님 등과도 잘 협력하여 교회의 중간 교량 역할과 목회자를 돕는 사역에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목을 이루고 칭찬과 격려로 성도들을 섬기는 권사회로 우리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무슨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와 정직성을 드러내는 3권사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올 한해를 시작합니다.

정혜옥 권사(벨리 제2권사회) 부족한 저를 연인연하게 하신 하나님과 모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에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권사회가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이 은혜받을 수 있도록 잘 섬기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정희 권사(MP권사회) 올해에는 권사회 모든 권사님들이 서로 잘 알고 친해져서 기쁨으로 주안예교회를 섬기며 함께 봉사하는 권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권사님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부전화와 만남을 자주 가져서 많은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권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تن자 권사(벨리 제3권사회) 벨리채플 3권사회는 주안에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권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직은 삶의 현장속에서 뛰고 달리는 분들이 많아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3권사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교회에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는 화



민창식 안수집사(MP안수집사회) 모든 안수집사님들이 이미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고 계시기에 바람이 있다면 현재 처해 있는 MP Chapel의 상황이나 교회의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일들에 적극 협조하며, 차후 안정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 있는 모임에 적극 참여, 서로 기도제목도 공유, 서로 상호 소통을 함으로 친교를 도모할 수 있는 안수집사회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부담이 없는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소단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안에생명·1면서 계속〉 강의 진행도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으로 이뤄져 따분하지 않고 재미있다. 24개 주제를 각 6개주제씩 묶어 4개 쿼터로 진행된다.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첫번째 주제 강의부터 내용이 참석자들의 귀에 쏙쏙 들어와 배우는 기쁨을 더했다. 그동안 각자 배운 말씀과 성경공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므로 바른 신앙과 누구에게나 복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쌓게 되리라 믿는다. 이 한해 주안에생명 시리즈에 참가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실력있는 주의 자녀가 됩시다.

한편 "주안에생명"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수요일아침반(벨리채플)과 주일예배 후(MP채플) 영상으로 공부할 수가 있다.

■ 교우동정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 포토 에세이/ 네 신을 벗어라



누구의 신발일까? ICY 중고등부 학생들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벗어놓은 귀여운 신발들이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뒤에서 다시한번 응원기도를 드린다. | 양영 기자 |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민첩한 '손끝' 봉사

■ 주안에일꾼



주안에교회 개척과 함께 뒤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성심성의껏 지켜 온 정소연 집사님을 아시나요?

자막국은 매주 예배 때마다 찬양가사를

비롯하여 설교말씀 및 광고와 소식까지 자막으로 성도님들의 예배를 돕는 사역국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 전부터 일찍이 교회에 나와 컴퓨터를 키고 분주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정소연 집사님입니다.

지난 3년동안 예배당 맨 뒤 작은공간에서 소리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며 예배준비는 물론 예배중에도 남모르게 흘린 식은땀은 최혁 목사님 다음으로 많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주안에 예배를 간절히 소원하여 성령님의 민첩함으로 자막국을 섬기는 정소연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자막국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나라에 큰 상급 쌓기를 응원합니다.

| 박경숙 기자 |

"고구마 · 고추농사 대풍 거뒀어요"



구자형 집사(CSUN 교수, 벨리 필하모닉 청소년 오케스트라 디렉터) 봄학기 오디션을 2월 3일과 10일 주일 오후 3시-8시까지 주안에교회 벨리채플 교육관에서 갖는다. 약기를 좋아하는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213)458-4618

안수집사 · 권사 임직 투표 전원 피택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임직자 투표가 지난 1월 13일 벨리와 MP채플에서 열렸다. 당회에서 추천된 총 29명의 시무안수집사(벨리17, MP12명)와 63명의 시무권사(벨리27, MP36명)후보에 대해 제직회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결 정족수인 투표자의 3분의2를 훨씬 초과하는 찬성으로 전체 후보가 모두 피택됐다.

앞으로 10개월간 피택임직자 훈련과 교육을 거쳐 올 12월 첫주에 임직예배를 갖게된다. 최혁 담임목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투표과정에서 시중 차별하게, 마음을 모아줘 교회가 하나되게 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은순 권사 전은순 권사님께서는 역이민을 하셔서 오랜 미국생활을 마치고 남편 전광수 집사님의 고향인 공주에서 농부로 변신하여 또 다른 삶을 사신다. 지난 가을 고구마 농사가 성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며 더욱 재미있는 일은 지난 가을 배추와 고추, 마늘농사가 풍년이 되어 김장을

담그셨는데 그맛은 일품이라 하셨다. 주안에교회 성도님들께서 혹시 한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되시어 공주에 오시면 맛있는 먹거리로 대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임용자 기자 |

■ 사역국·목자 한마디

“작은 일에 충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박상욱 안수집사(장비관리국) 교회의 예배사역과 관련된 장비나 물품들 또는 성도님들이 친교시 필요한 의자와 테이블까지도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싸서 옮기고 내리고 정리하면서 말없이 도와주시는 성도님을 보면서 주님이 옆에서 짐을 싸주시고 옮겨주시고 내려주시고 정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귀중한 헌금으로 구매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물건들을 책임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힘과 지혜를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모든 물건을 DATABASE화 하고 LABELING하는 작업을 2019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비관리국만으로는 혼자서 모든 기기나 물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장비나 물품들을 아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수/이레베카 집사(한여청년부) 부족한 저희를 귀한 청년사역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기도와 간구로 또한 성심을 다해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송태일/김지선 집사(MP 13목장)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섬기는 목장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가족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목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예배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 새가족 글/ 강헬렌(밸리채플)

소리소문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사를 권사님이 들어오는 길에서 처음 온 사람인거 첫눈에 딱 알아보시고 새가족실로 인도하셔서 2주 교육 받고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참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만나 바로 섬겨주신 새가족팀들께도 인사의 말씀 전합니다.



나로 나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신 말씀 되새기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 새 목자 소개/ 밸리 16목장
임종구 집사, 임용자 권사

“향기로운 커피처럼”

2019년 새해부터 16목장을 새롭게 섬기게 되신 밸리채플의 임종구, 임용자 목자님을 소개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브니엘 카페의 국장인 임용자 권사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을 주안교회에서 물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이름도 빛도 없이 뒤에서 임용자 권사님을 도와주시는 한 분이 계시니, 그 분은 바로 임종구 집사님으로 오늘도 브니엘 카페로 향기로운 커피 향을 나르는 '향기로운 남자' 이십니다.

임종구 집사님은 대학교 진학상담은 물론 다재다능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안에라이프 컴퓨터교사와 주안에신문 기자로 섬기고 계시며, 새해부터는 16목장 목자로써 새벽예배 때마다 기도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 3년동안 브니엘 카페를 한결같이 섬겨주신 그 열정으로 이제 여덟가정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뇌하시는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한해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방문한 동생가족과 함께 서부지역의 가볼만한 곳을 돌아보았다.

그중에 한곳인 아리조나의 세도나에 위치한 Holy Cross Chapel 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잊을수가 없다. 기도를 하고

나서는데 바로 앞에 위치한 바위가 한눈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얼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채플의 정면을 향하고 계시는걸까? 벌써 여러번째 방문인데 왜 한 번도 보이지 않았을까? 아직도 진하게 여운이 남아있다. | 오희경 기자 |



성령의 역사... 자녀들 가슴에 신앙의 싹 틔워

■ ICY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Murrieta Hot Spring Christian Center 에서 ICY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분은 Irvine 벨렐 교회에서 EM 사역을 하였고, 현재 북가주에서 Disciple church 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Sam Shin 목사님께서 말씀과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수련회 동안 지속적으로 선포 하였고, 또한 세미나 시간을 통해 동성 결혼

과 Peer pressure 에 관한 이슈들도 말씀에 근거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회와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수련회 첫날 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예배 시간을 지루해 하였던 학생들과 믿음이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신앙이 싹틔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으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자리에 있던 학생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 고등부의 시간을 거쳐 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의 연습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녀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더 해 지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대한 사랑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Volunteer로 섬기셨던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조원 집사 |

■ My Favorite Bible Verse

Joshua Kim 여호수아 1:9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Joo-an Choi 마태복음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Julie Kim 이사야 43:5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Justin Yu 야고보서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Jalen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Yenna 창세기 전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곳을 창조하심을 알려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달았다.





12월에 진행된 ICY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전혜숙 피택권사>

“밝고 진지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의 MP채플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있다. <최호기 기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를 바라라!”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나요? 예수님"



■ 주안에라이프 개강

재밋고 유익한 프로그램... 새학기 등록하세요!

주안에교회에는 ‘주안에’로 시작하는 단어 뒤에 따르는 명칭이 많다. “주안에교회”는 교회 명칭 이고, 구별할 것은 “주안에라이프”는 신앙의 생활활동을 위한 교회 사역과, < ‘주안에말씀’ ‘주안에 삶’ ‘주안에생명’ ‘주안에빛’ > 각각의 명칭은 교회 중심사역으로써의 신앙의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 중 ‘주안에생명’은 2019년에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강의 하는 교육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있어, 그 명칭이 낯설지 않다.

“주안에라이프”는 전교우님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활력을 증진시키는 교회사역이자 모임활동 프로그램이다. 본래 취지는 주안에교회의 은퇴한 교우님들을 위한 교회 사역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연령과 무관한 교제와 배움을 원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참여하는 모임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사역국에서는 MP Chapel의 교우님들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MP Chapel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는 당부도 전한다. “주안에라이프”는 1년중 6개월 동안 봄학기 3개월과 가을학기 3개월로 나누어, 매주 수요일날, 오전 시간인 9시부터 1시까지 동안, 본교회 친교관에 모여 체육, 음악, 교양, 취미,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제와 배



움의 마당이 펼쳐져 있다.

2019년 봄학기는 2월 27일 수요일 8:45분에 개강을 하며, (체육계열)의 라인댄스, 배드민턴, 스트레칭, 건강댄스, 탁구와, (음악계열)의 오토하프, 키보드, 어코디언, 첼로, 기타, 색소폰과, (취미계열)로 미술, 한지공예, 편물, 노래교실과, (교양계열)로는 스마트폰, 시민권영어, 성경공부, 컴퓨터, 등의 19학과목을 준비되어 있다.

이미 주변 교회에 입소문으로 퍼진 식사담당 헌신자들의 음식 맛은, 특별히 2019년에는 “주안에라이프 대장금국”으로 승격

하여, 새 국장님을 중심으로 매 점심때마다 다양한 한식으로 테이블 세팅을 포함해 더욱 정성드려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

본교회 교우님보다 타교회 교우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특별히 취급할 이유는 없지만, 교회에서 본교회 교우님들을 위해 마련한 사역이므로, 2019년에는 더 많은 본교회 교우님들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MP Chapel 교우님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준비도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미란 전도사님께 문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경배 안수집사 |

■ 양로원 방문

어르신들 찾아 찬양과 예배, 따뜻한 선물 전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주안에교회에서는 이미란 전도사님과 이재조 은퇴전도사님, 권사님 등 여덟분께서는 세군대 양로원을 방문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로는 양말 100켤레, 무릎담개, 간호원을 위한 선물로는 목도리 등을 선물로 준비해 가셨습니다.

찬양과 예배순서 후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많은 위로와 함께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오심으로 믿음의 실천을 하셨습니다.

양로원측에서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또 방문하여 달라는 답례를 보내 오셨습니다. | 임용자 기자 |

■ 코람데오 소식



뜨거운 기도와 찬양, 밤늦게까지 ‘영적 부흥회’

2019년이 시작되어 코람데오 리더들이 다같이 1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1박2일 아우팅을 갔습니다. 새롭게 청년부를 맡게되신 고웅일 목사님과 올 한해 청년부를 도와주실 한동수, 이레베카 집사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일 끝나고 출발을 했던거라 다들 피곤한 모습이 있었지만 막상 출발하고 나니 피곤함보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였지만 서로 웃고 떠들고 가다보니 금방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시간이 조금 지나 도착을 했지만 배고웠던 터라 준비했던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식사 후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다시 모였습니다. 동그랗게 모여앉아 고웅일 목사님의 인도로 찬양을 시작했고 코람데오 청년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리더들과 마음모아 기도하니 더 은혜로웠습니다.

기도회 이후 2019년 코람데오 청년부가 어떤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어떻게하면 더 영적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우팅을 간다고 해서 '바람쐬러 갔다오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얘기를 하다보

니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청년부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코람데오 청년부가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 조혜리 성도 |



새가족팀 첫 모임

코람데오 청년부 새가족팀이 새롭게 구성되어 지난 1월 23일(수) 저녁에 LA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9년도를 빛낼 새가족팀원은 구윤혜 팀장과 더불어 한천희 형제, 권성제 형제, 이미셀 자매, 양하민 자매로 총 5명이이며, 모두 다 교회에 방문하는 청년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 불끈다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청년부 담당 고웅일 목사와 청년사역 간사들(김윤영, 조혜리)도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었습니다.

새가족팀은 2월 2일(토)과 9일(토) 가지게 될 새가족 훈련을 거친 후 2월 10일(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고웅일 목사 |



■ 사역일지/ 이 에스터 사모

격려하시는 하나님

처음 찬양팀에서 섬기게 된 때는 대학 시절 때였다. 늘 예배당 맨 뒤 코너에 앉아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날 교회 친구가 내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서 강권하듯이 쥐어준 마이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줄이야. 그렇게 열떨결에(라기 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하게 된 찬양팀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를 부르신 사역의 자리였다.

몇 달 전 드렸던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찬양팀에 다시 한 번 들어가게 하심으로 응답이 되었다. 항상 보컬로만 섬겨왔던 내게 주어진 자리는 건반. 내게 키보드로 반주를 하는 것이란 혼자 찬양을 드릴때 똥똥똥 치던 것 뿐이었는데 공예배때 반주로 섬기는 데에는 자신도, 실력도 없었다. 그러기에 매 주마다 부담이 심했고 연습하는 시간과 노력은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들여야 했다.

연습을 하면서도 매번 실수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피아노를 치는 달란트를 주신 것인가 의문을 갖기도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해주셨는데도, 때때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나를 근거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 전 이성우 전도사님의 새벽설교 중, 내가 낙심되어 있을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의 일을 맡겨주심으로 격려해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내 실력, 그리고 마음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반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나를 격려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부족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내 소원을 보셨다는 것을.

지금도 부족하고 모자르고 매번 실수하지만 주께서 나의 근거가 되시기에, 또 맡겨주실때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시기에 이 사역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한다. 자격없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 분께 영광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최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찬양 팀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느끼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찬양 팀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마음도 실력도 더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연주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만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에스터 사모

■ 텃밭 가꾸기

2월은 과일묘목 · 야채심기 적기

집 정원에 과일나무 몇 그루를 심고 봄철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또 여름이나 가을에 맛있게 익은 열매를 따 먹을 때의 기쁨은 생각만 해도 행복해 진다. 또한 텃밭에 채소를 심고 필요 할 때 뜯어서 먹는 싱싱한 상추쌈, 새빨갭게 잘 익은 토마토의 달콤한 맛, 먹고 싶을 때 몇 개 툭 따다가 된장에 찍어 먹을 수 있는 풋 고추나 오이의 상큼한 맛은 우리 생활을 살지게 해 준다.

특히 금년 겨울은 비가 적당히 내리고 장기 일기 예보를 보면 남 가주 지역엔 2월 3월에도 알맞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일 나무나 채소 가꾸기가 수월할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가꾸기가 힘들면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를 받기가 십상인데 과일나무나 채소 종류를 잘 선택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먼저 과일 나무 중 남 가주 일대에서 적합한 것으로는 단감나무, 연시나무, 대추나무, 무화과나무, 블루베리 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레몬나무, 오렌지나무 만다린(귤나무) 등을 추천 할 수 있다.

그중 감나무와 대추나무는 맛도 좋지만 병, 벌레가 거의 없고 심고 2~3년 간만 나무 형태를 잡아 준 후에는 가지치기도 거의 필요없어 관리가 아주 수월하다.



감나무는 봄엔 잎이 예쁘고 여름엔 시원한 그늘, 가을엔 잎이 아름답게 단풍이지며 빨간 열매가 보기 좋아 정원수로도 적합하다. 대추나무는 심성이 좋아 아무 땅에서나 잘 자라고 가뭄에도 강해서 물주는 양도 적은 편이다. 기후 적응도 좋아 뉴욕부터 하와이까지, 사막지역부터 아열대지역까지 잘 자란다. 수확량도 많아 감나무와 대추나무는 대개 5년 정도만 잘 관리 해준 후에는 1년에 몇 백 개씩 수확이 가능하다. 5년 후부터는 사막 지역 외에서는 물과 거름도 스스로 해결 한다. 1월~3월에는 맨 뿌리 묘목과 화분에 심겨진 묘목들을 심기에 적합한 때이므로 이 기간에 옮겨 심으면 편리하고 나무가 잘 살게 된다.

텃밭이나 화분에서 채소를 가꿀 때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씨앗을 심어서 키우면 비용이 적게 들지만 모종을 심을 때보다 수확 기간이 2~3개월 정도 짧은 것이 단점이다. 모종을 심을 때는 2월부터 5월까지 좋은데 LA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2~4월에 심는 것이 적합하고 상추나 썩갠 겨울에도 잘 자라고 6월경이면 꽃이 피기 때문에 빨리 심으면 그만큼 수확 기간이 길어지므로 1월부터도 모종을 심는 것이 좋다. 풋고추나 토마토는 2월부터 심고 가지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3~4월에 심어야 좋다.

채소를 심을 때는 아멘드(Amend)란 거름흙을 밭 흙과 반반씩 섞거나, 닭 분뇨 거름을 밭 흙 2에 닭 분뇨거름 1의 비율로 섞은 후 심으면 잘 자라게 된다. 풋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은 모종을 심고 1개월가량 지나면 꽃이 피는데 이때 열매채소에 주는 유기농 비료를 매월 한 포기당 한 손가락 정도의 양을 포기 주위에 골고루 뿌려 주거나 닭 분뇨거름을 한 주먹정도 포기 주위에 뿌려 주면 많은 양의 열매를 수확 할 수 있다. | 나형철 기자(올림픽타운 식물원) |

■ MP 권사회

성도들 섬기기 · 기도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MP채플 권사회 모임이 지난 1월 27일(주일) 저녁 6시, 2019년도 신입 회장이신 이정희 권사댁에서 있었습니다. 주일예배를 마치고 5시경부터 모이기 시작하여 20여분의 권사님들이 함께하였는데, 이를 동안 음식을 준비한 회장님과 여러 권사님들의 풍성한 식탁은 어느 부패 식당의 음식보다 더 훌륭한 차림이었습니다.

최혁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나누는 후에, 2019년도 새 임원들을 소개하고, 권사회 월례회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의 여러가지 사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잠시 MP채플을 떠나 이웃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더욱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20여분의 권사님들은 모두가 함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헌신하기로 자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월례회를 마친 후에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한 해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도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안예교회를 사랑하시고, 순간 순간 권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 해 2019년도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임을 마치고 9시가 훌쩍 넘었지만, 몇몇 권사님들은 못다한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자리를 뜨지 못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회장님께서 넉넉히 준비한 음식을 싸주시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지만, 이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에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 이광영 기자 |

■ 벨리 권사회



2018년을 돌아보며 감사와 즐거운 교제 나누

한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지난 12월 마지막주 벨리 권사회에서는 40여명의 권사님들께서 모였습니다.

지난 일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예배와 기도로 마무리한 후 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를 했다.

이어 세계에서 제일 큰 웃으로 웃놀이

를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늦게 도착한 최혁 담임목사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어 더욱 의미있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주시고 지난 일년간 말없이 봉사하여주신 모든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임용자 기자 |



사회보장제도 궁금증 물어보세요(9)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중에 가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여유있는 재정과 외국인들에 대하여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그런지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타주에 비교하여 많이 실행되고 있는 주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인 메디칼만 보아도 미국의 많은 주가 시민권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곳에는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다가 지금은 불법체류자라도 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외국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주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주, 특히 LA County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두 가지 현금 혜택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General Relief: 흔히 약자로 GR 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single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현금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가족중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아닌 지난 호 들에서 설명해 드린 CalWOKs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혜택 액수가 매우 낮고 주로 단기적으로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으로써 승인이 되면 매달 \$229의 현금이 지불되며 그와 함께 보통 Calfresh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 하며 혜택을 받게 되면 곧 수혜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없는지를 평가받아 이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로 판단이 되면 County가 제공하는 의무 직업 훈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현금보조 GR · CAPI

<캘리포니아주 제공 프로그램>

노재덕 집사
(SSA 근무)



2)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흔히 CAPI라고 부르는 이 현금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은 SSI 신청자격과 매우 흡사합니다.

유일한 차이라고 한다면 SSI 는 시민권자에게 제한 되어있다고 한다면 CAPI 는 영주권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신청자들은 65세 이상으로써 수입이 없으며 1대의 자동차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중요한 조건으로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영주권의 발급이 1997년 이전에 받았거나 영주권 받을 당시 있었던 재정 보증자가 사망했을 경우, 혹은 재정 보증자가 요구되지 않는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정 폭력의 피해자나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추첨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들에 제한합니다.

혜택 액수는 SSI 와 비슷한 매달 약 \$900 정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이 수혜자는 SSI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인터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전환을 위해 County 정부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이들은 주로 영어에 서투르신 65세 이상의 연장자들이기때문에 서류를 대행해주고 그에 대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항업체의 횡포에 County가 매우 민감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해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그래서 사무실내에는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 직원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요즘한창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Public Charge, 즉 복지 혜택으로 인한 정부 공공 부담 문제와 그에 따른 새로운 지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19년 3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이광영, 이예스더, 임용자, 임종규, 조성운, 조용대(기자)

양영, 이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에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